

김후란 초기시 연구

-‘색채 이미지’를 중심으로-

양소영*

-차 례-

1. 서론
2. 붉은색, 양면성의 상황과 자아 각성
3. 흰색, 성스러움과 유한한 자아의 초월
4. 녹색, 영원함과 성숙의 의지
5.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김후란 초기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인의 내면세계를 살펴보며 초기시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초기시에 나타난 붉은색은 ‘꽃’과 ‘불꽃’으로 표현되며 생성과 파괴의 힘을 지녔다. 예를 들어, 「겨울 예감」에서 ‘붉은 살점과 피의 범벅’이라는 표현은 시인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상징한다. 하지만 “가식의 목걸이/사파이어가 하나 가득 불꽃 속에 튕겨지고 있었다.”(「불꽃」)에서 가식의 목걸이는 시인 자신의 거짓된 내면이고 이것이 불꽃 속에 튕겨지고 있었다는 것은 진정한 자아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초기시에서 흰색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성스러움을 상징한다. 백목련은 성스러움을 의미하며 시적 화자와 백목련과의 동화는 삶의 유한함을 초월하게 하고 존재론적 욕망을 보여준다. 「백의 환상」에서 백로의 날개짓이 하얀 나비 날개가 되는데, 나비는 영적인 힘을 지녔고, 이때 나비의 날개짓이 초월적인 행동으로 나타낸다. 백조가 나비가 되었다는 것은 성스러움을 표현한 것이다. 이런 점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여 시인의 내면세계를 점차 안정화 시킨다.

초기시에 나타난 녹색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영원성을 지닌다. 영원성의 의미를 지닌 녹색은 시인에게 성숙한 의지를 부여하게 한다. 「어느 하오」에서 돌에 나타난 영구히 녹색 그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퇴적되어 쌓이는, 시간의 영원성을 상징한다. 이런 시간의 영원성 앞에 시인은 완전히 자신을 깨우치며 성숙한 의지를 얻게 된다. “나무가 무성한 잎으로 웅변하듯”(「어느 하오」)에서 녹색을 통한 내적 성숙은 시인에게 풍요로운 내면세계를 확립하게 한다.

주제어 : 붉은색, 흰색, 초록색, 성스러움, 자아 각성, 자아 초월, 성숙

1. 서론

김후란(1934~)은 1959~1960년 『현대문학』에 시 「오늘을 위한 노래», 「문», 「달팽이」가 추천되어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시집으로 『장도와 장미』, 『음계』, 『어떤 파도』, 『눈의 나라 시민이 되어』, 『숲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시각에』, 『서울의 새벽』, 『우수의 바람』, 『세종대왕』, 『시인의 가슴에 심은 나무는』, 『따뜻한 가족』, 『새벽, 창을 열다』, 『비밀의 숲』이 있다. 그리고 시인은 현대문학상, 월탄문학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작품성을 인정 받아왔다. 이렇듯 시인이 10권이 넘는 시 작품 활동을 했고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작품에 대한 연구는 단편 형식의 평론들과 몇 개의 논문으로 이루어져 있을 뿐 아직까지 활발히 연구되지 않았다. 시인은 1960, 70년대 산업화 시대 속에서 김남조, 강은교, 최승자 등의 여성 시인처럼 당시 현실을 고민하며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해 왔다.

김후란 시 세계를 시기별로 구분을 하자면 1960, 70년대에 간행된 『장도와 장미』(한림출판사, 1968), 『음계』(한국시인협회, 1971), 『어떤 파도』(범서출판사, 1976)를 초기시로, 80, 90년대에 간행된 『눈의 나라, 시민이 되어』(서문당, 1982), 『숲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 시각에』(어문각, 1990), 『서울의 새벽』(마을, 1994), 『우수의 바람』(시와시학사, 1994), 장편 서사시집 『세종대왕』(어문각, 1997)를 중기시로, 2000년대 이후에 간행된 『시인의 가슴에 심은 나무는』(답계, 2006), 『따뜻한 가족』(시학, 2006), 『새벽, 창을 열다』(시학, 2012), 『비밀의 숲』(서정시학, 2014)을 후기시로 나눌 수 있다.¹⁾ 김후란 연구의 필요성은 실존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자신과 공동체의 연대성을 확인하며 독자적인 여성 시 세계를 구축했다는 점에 들 수 있다.

시인의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조명은 홍용희, 맹문재, 구명숙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들의 논의는 김후란 시에 나타난 실존의 의미를 밝히면서 시의 진정성과 시인의 존재성을 밝혀 보았다.²⁾ 또한 김후란 후기시

1) 맹문재, 「존재의 심화와 확대」, 『김후란 시 전집』, 푸른사상, 2015, 778~784쪽.

2) 홍용희, 「현존재의 진정성과 충만한 영원- 김후란론」, 『어문연구』64호, 어문연구학회, 2010, 407~419쪽.

의 가족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밝히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도 있다.³⁾ 그 동안 논의는 김후란 시 세계를 논의하였으나 김후란 시만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초기시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시에 대한 연구는 그의 시 세계 전반을 연구하기 위해 살펴본 정도에 불과하다.⁴⁾ 당시 산업 사회는 초기시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 또한 이런 점은 시인의 의식과 결부되어 김후란 시만의 독자적인 시 세계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시는 시인의 시 세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초기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김후란 시 세계 중 초기시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김후란 시 세계에서 초기시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지만 그동안 초기시에 대한 연구는 시 세계 전반을 분석하기 위한 단편적인 해석에 그쳤다.⁵⁾ 이런 점은 김후란 초기시의 특수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다. 이런 점을 문제점으로 보아 본고는 초기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를 중심으로 초기시를 풍부하고 새롭게 해석하고자 한다.

초기시에는 색채 이미지가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온통 홍엽(「가을」), 동백꽃 한 송이 훑벌처럼, 빨강계 타는 동백(「동백 한 송이」), 가지마다 불꽃을 피우고 앞 장선 계절(「유리창에」), 희미한 불빛 아래서 올리브를 씹었다(「겨울 예감」), 희디흰 팔을 뻗어 활시위를 늦추면(「은파」), 백지에 흰 회색 물감을 풀어 놓고(「해빙기」), 순백 옷자락 감싸 쥐고(「백목련」), 난빛 서린 뜨락에(「미영의 손」), 녹색 서린 고궁 뜨락에(「어느 하오」) 등이 있다. 김후란 초기시를 색채 이미지로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그의 초기시 전반에 색채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고, 시인은 색채 이미지를 중심으로 성숙한 의지의 변화 즉, 자아 성찰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은 김후란 초기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중기시 이후의 색채 이미지는 좀 더 확장되어 내

맹문재, 「존재의 심화와 확대」, 『김후란 시전집』, 푸른사상, 2015, 777~785쪽.

3) 구명숙, 「김후란 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와 현실 인식 - 『따뜻한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사상과 문화』5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94~108쪽.

4) 빈명숙, 「한국 기독교시에 나타난 생명 의식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2012, 76~105쪽.

5) 위의 논문.

면 의식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실존적 세계관을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후란 초기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는 시인의 시 세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초기시의 색채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이 김후란 작품 세계를 다양하고 풍요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후란 초기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는 단순히 색깔을 표현하는 기능이기보다 자아의 성찰과 유한한 자아의 초월, 성숙에의 의지로 작용하게 된다. 즉, 초기시의 색채 이미지는 자아의 성숙한 의지의 변화 양상을 이끌어 낸다. 초기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는 시인의 내면 의식을 나타내며 이런 점은 중기시와 후기시의 실존적 세계관의 바탕을 이루게 된다. 그만큼 색채 이미지는 그의 시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김후란 초기시에서 보여준 색채는 그의 시 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아직까지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초기시의 색채 이미지를 연구하는 것은 어떤 시련과 절망 속에서도 성숙한 자아의 변화를 취하며 풍요로운 내면세계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색채는 외양들의 작은 우주이다. 거기에는 뉴턴의 현대물리학이 일광에 따른 확실성을 확립하고 괴테 또한 특수한 원리와 더불어 열렬하게 탐구했던 보편적 원리, 즉 보고 느낄 줄 아는 것과 같은 예술의 본질적 단순성과 자연의 예측하기 어려운 성격을 보다 객관화하려는 역사를 완성시켰던 그런 소우주이다.”⁶⁾ 특히, 괴테의 색채는 내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간의 내부와 자연은 서로 분리 불가능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다.⁷⁾ 슈타이저는 색채란 주관적인 인상에 따른 물리적 파동으로 색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대상의 내면 본질을 파악이라고 주장했다.⁸⁾ 김후란 초기시에서 나타난 색채는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성숙한 자아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며, 본고는 초기시를 자아 성찰의 측면과 유한한 자아의 초월, 성숙에의 의지로 나누어 분석하여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더욱 이런 점은 색채를 통해 인간의

6) 만리오 브루사틴, 정진국 역, 『색채, 그 화려한 역사』, 까치, 2000, 15쪽.

7) 괴테, 장희창 역, 『색채론』, 민음사, 2003, 17쪽.

8) 루돌프 슈타이너, 양역관 역, 『색채의 본질』, 물병자리, 2000, 22쪽.

내면 심리를 표현하는 괴테의 색채론과 여러 색채 이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김후란 작품을 더욱 자세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2. 붉은색, 양면성의 상황과 자아 각성

시인은 초기시에서 산업화로 고통 받는 도시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서울은 파괴되었다./ 등뼈를 굽어지고 갈퀴리로 할퀴우고/ 죽지가 부러져나갔다./ 고진은 한쪽 폐부에/ 겨우 붙어서 살아 있다/ 서울 아, 서울/ 뼈 마디마디로 울던 서울이여/ 잠긴 목소리로 울부짖던/ 어둑새벽의 얼굴이여”(「나의 서울」 부분)에서 서울은 파괴되어 등뼈가 굽고 죽지가 부러지는 등 비참한 도시로 묘사되었다. 이런 도시는 사람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다. 더욱 「나의 서울」에서 도시는 뼈로 상징되면서 “뼈 마디마디로 울던 서울”처럼 고통의 절정을 보여주었다. 당시 서울은 산업화로 인해, 생태계와 전통 문화 등 소중한 가치가 파괴되었고, “잠긴 목소리로 울부짖던” 것처럼 시인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다.

하지만 시인은 “서울은 창백하고, 악성빈혈증”(「나의 서울」)같은 공간에서 “얼굴의 홍조”(「나의 서울」)를 띄며 “서울은 내 고향, 화해와 금지로 비롯된 땅”(「나의 서울」)임을 상기하며 절망 속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얼굴의 홍조”는 희망과 용기를 의미한다. 이렇듯 초기시에서 붉은색을 나타내는 부분이 많고, 붉은색은 ‘꽃’과 ‘불꽃’으로 표현되며 현실의 고통을 의미하지만 때로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게 한다. 즉, 붉은색은 생성과 파괴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 색채는 시각과 관련된 하나의 근원적인 자연 현상이며, 시각은 여타 모든 감각들과 마찬가지로 분리와 대립, 혼합과 결합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이러한 자연의 공식들에 의해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⁹⁾ 즉, 시인은 붉은색이 지닌 양면성을 통해 자아 각성의지를 펼치며 주체적인 의식을 보여주게 된다.

9) 괴테, 앞의 책, 41쪽.

눈앞에 꽃덤불이 쏟아져내렸다

해변은 일몰
젖은 몸으로 뒤척이며

급격히 풍화하는
바위 그늘에서
장미를 꺾었다

저항의
눈망울이

수태를 원치 않는 그의 속살같이
붉은 살점과 피의 범벅으로
덤벼들었다.

돌아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올리브를 씹었다.

이제 한동안 겨울밤이 계속될 것이다

「겨울 예감」¹⁰⁾

「겨울 예감」은 시적 화자가 장미를 보면서 내면을 성찰하는 시편이다. 시적 화자는 “눈 앞에 꽃덤불이 쏟아져내”러 오는 상황에서 “장미를 꺾었다.” 화자 주변의 정서는 “해변은 일몰”처럼 하강의 분위기이다. 하강의 이미지와 함께 장미의 생명력 소멸은 절망의 상황을 만들어 낸다. 물론 “눈 앞에 꽃덤불이 내려오”는 상황은 생명력의 풍요를 보여 주지만 일몰의 정서와 장미를 꺾어 버리는 행동은 희망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이는 시인이 경험하고 있는 당시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10) 오세영, 맹문재 엮음, 『김후란 시 전집』, 푸른사상, 2015, 151쪽.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특히, 꺾임을 당하는 순간 장미는 “붉은 살점과 피의 범벅으로/ 덩벼 들었다.”처럼 저항과 고통을 나타낸다. 이것은 시인 내면의 정서가 절망감과 슬픔을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적 화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희미한 불빛 아래서 올리브를 씹었다.”에서 초록색 이미지는 붉은색 이미지와 대비면서 붉은색의 살점과 피의 범벅의 상황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왜냐하면, 붉은색은 다른 색과의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¹¹⁾ 또한 붉은색은 분노, 수치심, 공포, 성적 끌림, 특별한 감정과도 연결되며¹²⁾ 이런 점에서 위의 시에서 “붉은 살점과 피의 범벅”은 고통의 절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불꽃」에서 시인은 산업화로 인한 불안정한 내면을 극복하며 자아를 각성하고 내적 의지를 다지게 된다.

그 순결을
차가운 연소로 지키는
목소리

단애의 결정적 순간에
활 활 자신을 내던지면서

비로소 회오리치는
꽃잎의 언어

산화되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다

벗어던진 가식의 목걸이
사과이어가 하나 가득
불꽃 속에 뒹겨지고 있었다.

11) 스파이크 버클로, 이영기 역, 『빨강의 문화사』, 컬처북, 2017, 14쪽.

12) 위의 책, 16쪽.

「불꽃」¹³⁾

「불꽃」은 불꽃에 나타난 연소 과정을 담고 있는 시편이다. 불꽃은 “활 활 자신을 내던지면서 비로소 회오리치는/ 꽃잎의 언어”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나타난 활 활 자신을 내던지는 불꽃은 생명력을 지니며 상승의 상상력을 담고 있다. 붉은색은 매우 활기찬 생명력의 의미를 지닌다.¹⁴⁾ 언어의 역사를 살펴보면 붉은색은 숨겨진 내적인 힘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이 숨겨진 내적인 힘은 야생 동물에게 강인한 건강을 주고 여성이나 식물이 꽃을 활짝 피우게 하며 돌에서 칼을 만들어 낼 수 있게 한다.¹⁵⁾ 이렇듯 붉은색은 활 활 자신을 내던지듯 내적인 힘을 지니며 생명에 대한 열망을 가득히 담고 있다.

특히, “벗어던진 가식의 목걸이/ 사파이어가 하나 가득 불꽃 속에 튕겨지고 있었다.”에서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식을 불꽃 속에 던져 버리며 자아 각성을 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위의 시에서 화자는 불꽃의 원초적 생명력을 통해 ‘가식의 목걸이 튕겨버린다’처럼 진실된 자아를 마주하게 한다. 화자는 “산화되어가는 것은/ 내가 아니다”며 불꽃 속에 나타난 표면적인 자신의 모습을 부정한다. 하지만 불꽃 속에서 자신의 “가식”이 타고 있음을 발견하는데, 이는 자아 성찰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시인의 자아 각성이라 볼 수 있다. 즉, 불꽃에 나타난 붉은색은 “그 순결을 /차가운 연소로 지키는 /목소리”처럼 내면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위의 시에서 나타난 붉은색의 생명력은 정화의 의미도 담겨 있고, 이때 시인은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산업화 현실에서 시인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기보다는 좀 더 “차가운 연소의 목소리”처럼 성찰을 통해 나아가길 원했다. 다시 말해, 불꽃은 “활 활 자신을 내던지면서/ 비로소 회오리치는/ 꽃잎의 언어”처럼 생명력과 정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어 시인은 불꽃 속에서 “가식”을 소멸시키며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색채와 빛은 비례관계에 있지만 양자는 전체 자연 속하는 것이며, 우리는 색채와 빛을 통해서 자

13) 오세영, 맹문재 엮음, 앞의 책, 72쪽.

14) 스파이크 버클로, 앞의 책, 260쪽.

15) 위의 책, 260~261쪽.

신의 모습을 시각에 특별히 드러내고자 한다.¹⁶⁾ 이런 점에서 붉은색은 시인에게 내면세계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며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사유 방식을 만들어 준다.

눈발이 뚝뚝
회색의 거리를 메우고
기상대 측우기엔
눈사람이 앉아서 썸을 하고 있었다.

넓게 트인 설야의 골목길
안식의 발목이 잠기우면

너울 쓴 아내의 손을 잡고
층계를 오르는 그의 모습

내 소유의 크낙한 정원을 가로질러
유리창 시계가 잠시 흔들린다.

너의 뜻으로 깔린 우단 보료를 밟고서
동백 한 송이 훗날처럼 가뉘 쥐고
이 밤을 따라서
그들 집에 이르렀다

사랑하는 이의 문 앞에 서듯
눈 오는 밤을 기대면
흘뿌린 보석
온 세상에 창이 있네
따뜻한 불빛
빨갭게 타는 동백 창가에 놓고 오며
참 잊었던 애기가 가슴에 지핀다.

16) 괴테, 앞의 책, 29쪽.

맑은 밤 아니 아침이었다.

「동백 한 송이」¹⁷⁾부분

「동백 한 송이」는 시적 화자가 겨울밤 동백꽃 한 송이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편이다. “눈발이 뚝뚝/ 회색의 거리를 메우고/ 기상대 측우기엔/ 눈사람이 앉아서 썸을 하고 있었다.”처럼 거리는 눈으로 덮여 있고 고요하며, 절망과 슬픔이 없다. 눈이 오는 회색의 거리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어떠한 동요를 없이 잔잔하게 만들어 준다. 이런 상태에서 “내 소유의 크낙한 정원을 가로질러/ 유리창 시계가 잠시 흔들린다.”는 것은 시계가 잇고 있던 화자의 내면을 일깨우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동백 한 송이 촛불처럼 가뉘 쥐고/ 이 밤을 따라서”에서 동백 한 송이는 삶의 지표가 되듯 시적 화자에게 어두운 밤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눈오는 밤에 “빨강계 타는 동백”꽃은 “참 잊었던 애기가 가슴에 지핀다.”처럼 절망 속에서 삶의 목적지를 안내하며 잊었던 내면의 의식을 일깨워 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색 체계에 따르면 빨강은 검정과 하양 사이의 중간이다. 균형을 힘의 원천이며 안전의 원천이기도 하며 이런 역할은 전통 사회에서 빨강에 부적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부여했다.”¹⁸⁾ 시인은 “빨강계 타는 동백”을 통해 비애와 절망으로 인한 불안한 마음보다 “잊고 있었던 애기”를 만들 수 있듯이 마음의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하게 된다. “빨강계 타는 동백”은 인생의 기준점처럼 작용하고 이런 자세는 시인에게 성찰을 만들며 “나를 구축하는”(「샤넬의 향기를」) 자아 각성도 하게 한다.

시청 앞 광장에 노는
비둘기 무리는
시간이 흘러고 간
정오의 목시를 씹는다

17) 오세영, 맹문재 엮음, 앞의 책, 103~104쪽.

18) 스파이크 버클로, 앞의 책, 295쪽.

어깨를 추스르며
달려가는
무수한 낙서

범람하는 차륜 사이를 누비며
오늘의 신화는, 이제
꿈틀거리는 밤을 기다리지 않는다.

웅성대는
도시의
한낮의 햇불은

일제히 머리를 들고
무리져 날아가는
저
비둘기 발목에
빨갭게 점화되었다.

「햇불」19)

「햇불」은 시적 화자가 도시에서 햇불을 들고 저항의 의지를 다지는 시편이다. “시청 앞”은 도시를 상징한다. “비둘기 무리는 시간이 흘러고 간 정오의 목시를 씹는다”에서 도시 비둘기는 집단을 의미하며 시민들은 시간을 초월하여 무언가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의 신화는, 이제/ 꿈틀거리는 밤을 기다리지 않는다.”에서 사람들은 도시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고 있다. 특히, “도시의 한낮의 햇불”은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의지 표출이다. 왜냐하면, 마술사들이 사용하는 주문은 붉은색 잉크이고, 붉은 색채가 악마에 대항하여 귀신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을 지녔다고 믿었고, 그 색이 보석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적인 힘이 들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²⁰⁾ 더욱 “일제히 머리를 들고 /무리져 날아가는/ 저 비둘기 발목에 빨갭게 점화되었다.”

19) 오세영, 맹문재 엮음, 앞의 책, 67쪽.

20) 파버 비렌, 김화중 역, 『색채 심리』, 동국출판사, 1993, 52~53쪽.

는 것은 삶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출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비둘기 발목을 빨갱게 점화되고 있는 것은 강한 생명력과 존재에 대한 심화를 담고 있고, 이렇듯 시인의 자아 각성은 현실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만들게 한다.

3. 흰색, 성스러움과 유한한 자아의 초월

김후란 초기시에는 흰색 이미지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수없이 날아가는 백조”(「환」), “희롱하는 달의 희디흰 팔이 뻗어”(「은파」), “순백 옷자락 감싸쥐고(「백목련」), ”파도의 흰거품이 눈위로 쓸고 간다“(「파도」), ”하얀 날개는 나비가 되어“(「백의 환상」) 등이 있다. 시인은 붉은색을 통해 자아 성찰과 각성을 하였다면 흰색을 통해 성스러움을 얻고 유한한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며 좀 더 안정적인 내면세계를 얻게 된다.

어둠이 타는 곳에
빛을 사린
한 줄기 뜻

두손 모아
고즈넉한 이맛전에
스쳐가는 바람결마저
조심스러워

세속의 잎잎이
눈뜨기 전
새벽기도 울리듯
나선 길이었네

그 맑은 예지의 손길로
순백 옷자락 감싸쥐고

높은 기상, 가없는 하늘 아래
 홀로 뜨거운 가슴이었네

「백목련」²¹⁾

「백목련」은 시적 화자가 백목련을 보며 감상하는 시편이다. 백목련은 “순백 옷자락 감싸쥐고/ 높은 기상, 가없는 하늘 아래”에 존재하는 성스러운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하늘은 직접적으로 자연스러운 무한한 거리, 신의 초월성을 계시하며 무한하고 성스러움을 지닌다.²²⁾ 이런 하늘 아래 “순백 옷자락”을 지닌 백목련은 그 자체로 성스럽다. 왜냐하면 흰색은 신성한 색으로, 구약에서 야훼의 빛으로 “두루마기처럼 빛을 휘 감았습니다.”처럼 그의 모습은 밝고 부활을 알리는 천사의 의미로 흰색을 나타내기 때문이다.²³⁾ 하늘과 백목련이 지닌 성스러움은 “뜨거운 가슴”처럼 시적 화자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동화시키고 있다. 특히, “어둠이 타는 곳에 빛을 사린 한 줄기 뜻”에서 흰 빛은 어둡고 불안한 상황에 희망을 상징하며, “빛을 사린 한 줄기”는 그 자체로 도덕적이고 영적인 힘을 지닌다. 엘리아데는 어둠 속의 빛이 하나의 존재에서 다른 존재 양식으로 이행을 가능하게 하는 존재론적 초월과 돌파를 표현하는 것과 같은 신비스러움이 있다고 했다.²⁴⁾ 이런 점에서 어둠 속에 존재하는 백목련은 하나의 빛으로 존재론적 초월과 같은 신성한 모습을 더욱 취하게 된다.

“세속의 잎잎이/ 눈뜨기 전/ 새벽기도 올리듯 나선 길이었네”에서 새벽녘은 화자가 기도를 하기 좋은 시간이며 세속적 상황을 거부하는 욕망을 담고 있다. 더욱 새벽 기도와 연결된 백목련은 시적 화자를 성스러운 세계로 이끌게 한다. 흰색의 정화와 안정성은 흰색 꽃에 의해서 상징화되며, 흰 꽃 중에는 그리스도교를 상징하는 꽃도 있고 마리아의 깨끗함을 구현하기도 한다.²⁵⁾ “세속의 잎잎이/ 눈뜨기 전”은 아직 아

21) 오세영, 맹문재 엮음, 앞의 책, 130쪽.

22) 메르치아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 1998, 121~123쪽.

23) 잉그리드 리텔, 정여주 역, 『색의 신비』, 학지사, 2004, 236쪽.

24) 메르치아 엘리아데, 앞의 책, 164~166쪽.

25) 잉그리드 리텔, 앞의 책, 232쪽.

무도 손대지 않는 신성하게 피어있는 흰 꽃의 본질적인 특성을 담고 있다. 이렇듯 모든 것이 흰 꽃 안에 순결하고 성스럽게 포함되고 있다. 즉, “세속의 잎잎이 눈뜨기 전”은 백목련이 지닌 흰색의 무채색 분할되지 않는 빛을 담고 있고, 이것은 신성함을 더욱 강조하게 된다. 또한 “홀로 뜨거운 가슴이었네”는 시적 화자가 백목련을 통해서 자연의 신비로움과 동화됨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시인은 백목련과의 동화를 통해 “나의 해체를 끝마쳤노라, 일어서고 싶은 욕망”(「내일의 무덤」)처럼 유한한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며 “홀로 뜨거운 가슴”을 지닌 존재론적 욕망의 절정을 보여 준다.

올 겨울 유난히 춥다던 영하 10도의 늦은 어느 밤, 목로를 나서는
발밑 빙판에 한 가닥 낭만이 깔려 있었다.

잊어도 좋을 장난스런 밀어를 나누며 과자점을 들러 과자 한 봉지를
집어 들고 눈이 아픈 설광 백야를 걷는다.

집에선 지금쯤 두 꼬마가 문소리 귀기울이며 잠들었겠지 그러나
이렇게 수려한 밤엔 어쩐지 곧바로 차를 탈수가 없다

길가엔 나뭇이 대기에 밀려 저만치 미끄러져 얼어버리고 공중엔
하들거리며 날개를 떠는 서울 밤하늘의 가로등 불빛

언 손을 주머니 속에서 녹여주며 말없이 기대어오는 그이는 오늘
나를 믿고 마음껏 취했나보다

「백야」26)부분

호숫가에서
첫새벽 이가 시린
얼음을 깨는

26) 오세영, 맹문재 엮음, 앞의 책, 107쪽.

매끄러운
백조
의 그 상쾌한 목둘레

실바람에 동요하는
그대 속눈썹이
레이스 커튼 너머로 나부끼다.

불문에 부치기로 하자
이 눈부신 날에
거리도 지붕도
온통 반짝이는
세상에
물방울 무늬의
웃음으로 피어난
그 하얀 날개는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게
하자.

「백의 환상」 27)부분

「백야」는 시적 화자가 설야를 거닐며 느낀 정서를 담은 시편이다. 영하 10도의 겨울밤, 시적 화자는 설야를 걸으며 낭만을 생각하거나 집에 있을 아이를 떠올리기도 한다. 게다가 화자는 이런 “수려한 밤에 곧바로 차를 탈 수가 없다”며 더욱 설야를 걷고자 했다. 특히, 설야 속에서 “날개를 떠는 서울 밤하늘의 가로등 불빛”은 마치 시적 화자가 구속 없이 자유롭게 삶을 지내는 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하늘의 불빛은 지상에 묶인 삶의 물질적 구속으로부터 자유와, 신비체험을 통해 영혼이 신들에게로 올라감”²⁸⁾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날개와 같은 불빛’은 설야를 더욱 성스럽게 만들며, 시적 화자는 ‘마음껏 취

27) 오세영, 맹문재 엮음, 앞의 책, 131쪽.

28) 데이비드 폰테너, 최승자 역,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1998, 86쪽.

하고 싶다'처럼 성스러운 세계와 동화를 원한다. 화자는 흰색으로 나타나는 빛 속에서 자신을 더욱 영적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 즉, 인간의 영적인 부분은 “비추어져 나오는 것”과 같은 경험을 지니는데, 혼이 이런 방식을 통해 자신을 체험하게 되고 빛과 색채에 의해 체험되는 모든 것은 지각하게 된다.²⁹⁾ 즉, 흰색의 성스러움은 ‘나를 믿고 마음껏 취하고 싶다’처럼 유한한 자아를 초월하게 하며 이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 보여주는 것으로 시인의 불안정한 내면 상태가 긍정적인 상태로 됨을 의미한다.

「백의 환상」은 백조의 비상을 표현한 시편이다. 백조는 “호수가에 첫 새벽 이가 시린 얼음 깨는 매끄러운 백조의 그 상쾌한 목둘레”를 가졌다. 특히, 백조의 날개짓은 “눈부신 날”에 더욱 물방울 무늬의 웃음으로 피어난 하얀 날개처럼 나비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었다. 백조의 하얀 날개를 나비로 형상화되는 것은 나비가 ‘영적인 힘’을 지닌 것을 의미하며, 나비의 날개짓은 그 자체가 하나의 초월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고, 때로는 높은 곳에서 들려오는 말씀의 형상되기도 한다.³⁰⁾ 백조가 하얀 나비로 변이되는 것은 성스러움을 표현한 것이고, 이것은 시인이 산업화로 인한 현실의 절망감에서 벗어나서 점차 내면의 회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하다.

4. 녹색, 영원함과 성숙의 의지

초기시에는 녹색 이미지가 많이 나온다. 김후란 시에서 보여준 녹색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조화로움을 간직하며 시인에게 성숙한 정서를 부여한다. “꿈꾸는 너의 잠 속에/바다가 있다/ 뒤척이며 흐느끼며/비밀스런 햇살이/ 파도에 밀리는/ 내가 익사하고 싶은/ 바다가 있다 오늘 너의/ 잠 속엔 초원 /핑굴며 달리며 때로 / 얼굴을 묻어가며 한 마리 딱정벌레로 기어들고 싶다” (「너의 잠 속에」)처럼 시인은 수면의 무의

29) 루돌프 슈타이너, 앞의 책, 24쪽.

30) 김영철, 「현대시에 나타난 나비심상의 지수지평적 연구」, 『한국시학연구』20호, 한국시학회, 2007, 217쪽.

식을 초원으로 표현한다. 녹색은 자연을 상징하며 영생에 대한 희구, 마음의 평화를 주는 색, 신경 및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킨다.³¹⁾ 초기시에 나타난 녹색은 자아와 세계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영원성의 상징이다. 특히, 녹색은 시인에게 성숙한 의지를 부여하며 진정한 내면의 평화를 얻게 한다.

너와 함께
이냥 한 쌍 돌이 될까

정밀한 이 밤
세계는 거울 속에 부서지고
나를 머물게 하는 시각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다.
옛날에 그 옛날에
누군가의 손으로 던지어져서
지금은 어느 해초 뿌리를 덮고 있을
하나의 돌이고저

영구히 녹색 그들의 애무로
깊은 바다의 침묵 속에
풍화되어가며 다시 나를 깨우치고저

파도를 이루며
우리를 방출하는
새로운 해탈을 꿈꾸며

정밀한 이 밤
이냥 한 쌍 돌이 될까

나를 머물게 한 이 시각에

31) 파버 피렌, 앞의 책, 222쪽, 320쪽.

「밤의 언어」³²⁾

「밤의 언어」는 시적 화자가 “돌”이 되어 영원히 녹색 그늘에서 묻히기를 희망하는 시편이다. 어두운 밤은 시적 화자를 “정밀한 이 밤/ 세계는 거울 속에 부서지고/나를 머물게 하는 시각”처럼 무아의 경지에 빠져들게 한다. 다시 말해, “정밀한 이 밤”은 파괴적인 상징보다 긍정적인 상징을 지니며 자신의 내적인 부분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낮 동안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보고 느끼는지 정확히 확인이 가능하지만, 어두운 밤은 외부 현실과 연결을 끊고 자기 소유의 세계에 빠져 들게 한다.³³⁾ 그러므로 시적 화자는 밤이 지닌 그 무아의 경지 속에서 “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돌에는 항구성, 영원성, 견고함이 담겨 있고 이때 돌의 견고함은 인간에게 인간 조건의 불안정을 초월한 어떤 것을 보여주며, 절대적인 존재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³⁴⁾ 인간은 돌의 크기, 견고함, 형태, 색깔에서 인간이 속해 있는 속세와는 다른 세계에 속해 있는 실재와 힘을 만나게 된다.³⁵⁾ 이런 점에서 볼 때, 화자는 돌이 지닌 절대적이고 영원함을 통해 “너와 함께 이냥 한 쌍 돌이 될까”처럼 사랑하는 대상과 영원히 같이 하나가 되고자 열망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화자는 돌이 지닌 견고함을 통해 “어느 해초 뿌리를 덮고 있을 하나의 돌”처럼 현실과 다른 세계의 절대적인 존재 형성을 더욱 보여 주게 된다.

특히,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돌에 덮힌 어느 해초에 나타난 “영구히 녹색 그늘의 애무로” 완전히 “나를 깨우치”고자 한다. 시적 화자는 “녹색 그늘의 애무”를 통해 생명력이 넘치고 생동하는 자연을 더욱 느끼게 된다. 왜냐하면, 바다와 빛, 온기 속에서 화자는 시선을 돌리면 생명력을 가진 녹색의 이끼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녹색은 바로 그 생물들이 아직도 조직체의 낮은 단계에 머물르고 있고, 이러한 원색이 그들에게서 천연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³⁶⁾ 더욱 녹색은 모든 것을

32) 오세영, 맹문재 엮음, 앞의 책, 100쪽.

33) 슈테판 클라인, 전대호 역, 『어젯밤 꿈이 나에게 말해 준 것들』, 웅진지식하우스, 2016, 28~29쪽.

34) 메르치아 엘리야데,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297~ 298쪽.

35) 위의 책, 298쪽.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원성의 힘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돌도 녹색 습기를 지니지 않는 것이 없고 살아 있는 영원성 자체는 녹색의 힘 없이 는 살아갈 수 없다.³⁷⁾ 이런 점에서 볼 때, “영구히 녹색 그들은”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퇴적되어 존재하는 시간의 영원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위의 시에 나타난 녹색은 시적 화자를 영원한 세계에 놓이게 하며 자신을 깨우고 “새로운 해탈”을 경험하게 한다. 사람들은 녹색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데 황색과 청색이 혼합되어 하나의 색이 다른 하나의 색보다 안정된 상태가 되면 우리의 눈과 감정을 이 혼합색을 마치 단일색인 것처럼 본다.³⁸⁾ 편안한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상주하는 방의 벽지는 대개 녹색으로 선택된다.³⁹⁾ 즉, 영원함과 더불어 진정시키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녹색은 시인에게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해탈”하게 하며 나를 돌아보게 하고 “돌”처럼 순수하고 영원한 존재를 더욱 꿈꾸게 한다.

산만한 하오였다

화살촉으로 내리쬐는 햇살에
눈이 시린 비둘기는
땅 위에 부리를 찡는다.

녹색 안개 서린
고궁 뜨락을 거닐며
무엇인가 익어 터지지 않고는
못 견딜 성숙의 몸부림을
실감한다.

수액은 분수처럼
솟구쳐올랐다

36) 괴테, 앞의 책, 214쪽.

37) 잉그리드 리델, 앞의 책, 145쪽.

38) 괴테, 앞의 책, 257쪽.

39) 위의 책, 257쪽.

나무가 무성한 잎으로 웅변하듯
내 여름 뜨거운 혼돈에도

「어느 하오」⁴⁰⁾부분

어느 날 연녹색
눈이 트이는 아침의
신선한 경악으로 시작되기까지
완숙에의 의지는 또
소리없이 진행한다.

「탄생」⁴¹⁾부분

「어느 하오」에서 시적 화자는 “녹색 안개 서린 고궁 뜨락을 거닐며” “성숙의 몸부림”을 경험하게 된다. 녹색 안개는 시적 화자에서 성숙을 향한 의지를 만들어 가게 한다. “화살촉으로 내리쬐는 햇살에 /눈이 시린 비둘기는 /땅 위에 부리를 찡는다.”처럼 여름날은 너무 더워 비둘기가 땅 위에 부리를 넣을 정도로 힘든 계절이다. 녹색은 자연 일년 중에 질풍노도의 계절인 봄을 견디어내고 자기 만족적인 평온 속에 침잠해 있는 여름의 지배적인 색이다.⁴²⁾ 시적 화자는 이런 여름날 “녹색 안개 서린 고궁 뜨락을 거닐며”, “성숙의 몸부림”을 경험하고 내면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녹색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영원성이 힘이 있고, 어떤 나무도 녹색의 힘이 없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 녹색의 힘은 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에게도 작용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진정시킨다.⁴³⁾ 녹색 안개로 고궁을 둘러싼 분위기는 무성한 잎으로 확장되면서 내면의 정서를 일으키며 화자에게 “무엇인가 익어 터지지 않고는

40) 오세영, 맹문재 엮음, 앞의 책, 88쪽.

41) 위의 책, 123쪽.

42)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길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79, 91쪽.

43) 잉그리드 리텔, 앞의 책, 135~136쪽.

못 견딜 성숙의 몸부림”을 만든다. 또한 「탄생」에서 시적 화자는 연녹색 눈이 트이는 아침에 “완숙에의 의지”를 경험하게 된다.

결국, 시인은 영원성의 상징인 녹색을 통해 성숙의 의지를 더욱 부여 받는다. 왜냐하면 녹색은 “나무의 정서”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나무는 우리와 함께 자라고 우리의 어린 시절과 함께 있으며 녹색에 대한 우리의 경험에 자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⁴⁴⁾ 성장하고 성숙하며 마침내 과일을 열리게 하는 나무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녹색 경험에 오랫동안 영향을 끼치는데, 성장, 성숙, 보호와 그들을 주고 다른 것과 연결되는 장소가 모두 녹색이다.⁴⁵⁾ 성장과 성숙을 상징하는 녹색은 시적 화자에게 “무엇인가 익어 터지지 않고는 못 견딜 성숙의 몸부림”을 더욱 경험하게 한다. 시인은 “나무가 무성한 잎으로 웅변하듯”처럼 녹색에 나타난 내적 성숙을 통해 풍요로운 내면세계를 확립하게 된다.

5. 결론

이 논문은 김후란 초기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를 중심으로 시인의 내면세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초기시에는 붉은색이 많이 나타난다. 이때 붉은색은 꽃과 불꽃으로 표현되며 생성과 파괴의 힘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시인은 붉은색을 통해 자아 각성을 하게 된다. 우선 「겨울 예감」에서 “붉은 살점과 피의 범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인의 내면이 지닌 고통의 절정을 의미한다. 하지만 「불꽃」에서 시인은 불안정한 내면을 극복하며 자아를 각성하고 내면의 의지를 다지게 된다. 특히, “벗어던진 가식의 목걸이/사과이어가 하나 가득 불꽃 속에 뿜겨지고 있었다”에서 시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가식을 불꽃 속에 던져 버리며 자아 각성을 하고 있었다.

초기시에서 흰색이 많이 등장한다. 이때 시인은 흰색을 통해 성스러움을 얻고 유한한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며 안정적인 내면세계를 얻게 된다. 「백목련」은 화자가 백목련을 통해 성스러움을 느끼며 특히 화자

44) 잉그리드 리텔, 앞의 책, 137쪽.

45) 잉그리드 리텔, 앞의 책, 138쪽.

는 백목련과의 동화를 통해 유한한 자아의 한계를 초월을 느끼며 홀로 뜨거운 가슴처럼 존재론적 욕망을 형성하게 된다. 「백의 환상」에서 백조의 날개짓은 마치 하얀 나비의 날개짓과 유사하며 이것은 나비가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백조가 하얀 나비가 되었다는 것은 성스러움의 표현이며 더욱 여기서 시인은 유한한 자아의 초월을 느끼고 이것은 시인의 안정적인 내면세계를 형성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초기시에는 초록색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모든 경계를 초월하는 영원성을 상징하며 시인에게 성숙한 의지를 만들어 준다. 「어느 하오」에서 시적 화자는 돌에 덮힌 어느 해초에 나타난 영구한 녹색 그늘을 통해 완전히 자신을 깨우치게 된다. 영구히 녹색 그늘은 일정한 시간 동안 연속적인 퇴적되어 쌓이는 시간의 영원성을 의미한다. 이런 영원성을 지닌 녹색은 시인의 성숙의 의지를 더욱 만들어 가게 한다. 이런 점은 시인의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하며 자신의 긍정적인 내면세계를 확립하게 만든다.

김후란 초기시를 색채 이미지로 분석하는 것은 산업화에서 자아를 각성하게 하여 자아 성찰을 이루게 했으며, 자연 속에서 성스러움을 이끌며 유한한 자아를 초월하게 하였다는 점, 절망 속에서도 성숙한 의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중기시 이후부터 이런 색채 이미지는 좀 더 확장되어 내면 의식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표현하며 실존적 세계관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므로 김후란 초기시에 나타난 색채 이미지는 시 세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은 색채 이미지를 통해 산업화로 인한 절망 속에서도 성숙한 의지를 만들었고, 이는 시인의 풍요로운 내면세계가 내포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중요한 시인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Abstract]

A Study on early poems by Kim Hu-ran

-Focusing on Color Images

Yang, Soyoung(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try to examine the inner world of Poet Kim Hu-ran by focusing on color images shown in his early poems.

The red colors which appeared in his early poems are expressed as flowers and flame and have the forces of creation and destruction. For example, expressions of a piece of red meat and covered in blood in 「A Hunch of Winter」 symbolize the poet's painful inner world. However, a false necklace in "A false necklace/sapphire was bouncing off in the flame." means his false inner world and bouncing off in the flame does his true self's awakening.

In his early poems, the white color frequently appeared, which symbolizes sanctity. White magnolias symbolize sanctity and assimilation into them makes him transcend limited life and shows ontologicistic desire. A white heron's wings were expressed as a white butterfly's wings in 「White fantasy」, which means that the butterfly has spiritual powers and it can be thought that its wings themselves did transcendental behaviors. The swan that became the butterfly is expressed as sanctity and this point makes him escape from hopeless reality and means that the inner world is gradually stabilized.

In the early poems, the green color appears, which has eternity that transcends all boundaries. This green color gives

the poet his mature volition. In 「From Afternoon and Evening」, the eternal green shade on a stone symbolizes the eternity of time, which continues to be accumulated and heaped up. A poetic narrator gets to obtain his mature volition completely awakening himself before the eternity of time like this. In "as if a tree speak eloquently with its dense foliage," inner mature through the green color establishes the poet's rich inner world.

key words : Red, white, green, sacredness, self-awareness, solidarity, maturity

[참고문헌]

■기본 자료

오세영, 맹문재 엮음, 『김후란 시 전집』, 푸른사상, 2015.

■논문

구명숙, 「김후란 시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와 현실 인식」, 『한국사상과 문화』 51호, 한국사상문화학회, 2010.

김영철, 「현대시에 나타난 나비심상의 지수지평적 연구」, 『한국시학연구』 20호, 한국시학회, 2007.

맹문재, 「존재의 심화와 확대」, 『김후란 시전집』, 푸른사상, 2015.

빈명숙, 「한국 기독교시에 나타난 생명의식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2012.

홍용희, 「현존재의 진정성과 충만한 영원- 김후란론」, 『어문연구』 64호, 어문연구학회, 2010.

■단행본

괴테, 장의창 역, 『색채론』, 민음사, 2003.

데이비드 폰테너, 최승자 역, 『상징의 비밀』, 문학동네, 1998.

루돌프 슈타이너, 양역관 역, 『색채의 본질』, 물병자리, 2000.

만리오 브루사틴, 정진국 역, 『색채, 그 화려한 역사』, 까치, 2000.

바실리 칸딘스키, 권영길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1979, 열화당.

슈테판 클라인, 전대호 역, 『어젯밤 꿈이 나에게 말해 준 것들』, 웅진지식하우스, 2016.

스파이크 버클로, 이영기 역, 『빨강의 문화사』, 컬처룩, 2017.

파버 비렌, 김화중 역, 『색채 심리』, 동국출판사, 1993.

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 1998.

엘리아데, 이은봉 역, 『종교형태론』, 한길사, 1996.

잉그리드 리텔, 정여주 역, 『색의 신비』, 학지사, 2004.